

정론직필 언론사명 다하길



곽득룡
(인쇄연합회장)

오랜 세월동안 우리 인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산업으로서 인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프린팅코리아' 라는 제호로서 월간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인쇄업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창간호를 발행하기까지 애쓰신 대한인쇄문화협회 민재기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그간 인쇄신문을 통하여 인쇄업계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업계의 권익신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지향하는 인쇄업계의 좌표를 제시하고 국제화와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종합 월간지로서 거듭나게 된 것은 업계로서 크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쇄언론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인쇄기술과 인쇄환경에 대하여 발빠른 취재를 통하여 남보다 앞장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쇄업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 인쇄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무역시장 개방이라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어쩔 수 없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중소기업 주요 지원정책중 하나인 단체수계약제도 존속이 점차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쇄업종 만큼은 단체수계약 제도가 존속하는 날까지 인쇄품목을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인쇄업계가 한마음으로 뭉쳐 어떠한 문제도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합니다. 업체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업계의 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인쇄문화인들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인쇄문화인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단합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인식하시고 모두가 상호협력하며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은 인쇄가족으로서 귀지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월간지의 창간을 계기로, 그간 신문이라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소 소홀 할 수밖에 없었던 기획취재, 심층취재를 보다 강화하여 인쇄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간이라는 결단을 내린 대한인쇄문화협회에 경의를 표하며 업계의 발전과 함께 계속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프린팅코리아' 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인쇄종주국 위상제고에 만전을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오늘 월간 프린팅코리아를 창간하여 선보인다고 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먼저 창간을 위해 애써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대한인쇄문화협회의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종합 인쇄잡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간 준비를 했던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프린팅코리아에 거는 인쇄인들의 기대가 크기에 앞으로 인쇄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인쇄업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선조들이 이룩하신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는 매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1377년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을 인쇄함으로써 유네스코로부터 인쇄종주국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잊으면 안됩니다. '직지'가 있기에 우리 인쇄인은 문화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 재임시절 직지찾기 운동과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지난해 9월 4일 드디어 그 실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협과 프린팅코리아를 중심으로 직지찾기 운동과 인쇄종주국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기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정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정보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인쇄문화산업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21세기에도 정보산업의 핵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자매체의 부상으로 기존 인쇄물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으나 우리가 종이인쇄물만 인쇄물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다각화 되어가고 있는 인쇄매체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분명 21세기에도 인쇄가 정보산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창간되는 프린팅코리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쇄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한인쇄연구소를 활성화시켜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인쇄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 등으로 품질 및 생산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연구소의 발전은 곧 자사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프린팅코리아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박 중 일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인쇄권익보호 최선 다하길



고 수곤
(서울조합 이사장)

인쇄전문지 월간「프린팅코리아」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롭게 창간되는 월간「프린팅코리아」임직원들은 인쇄관련 정보를 비롯한 국내외 신기술 동향 등 인쇄산업분야의 소식들을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빠르게 전달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월간「프린팅코리아」가 문명사적 대변환기를 맞고 있는 21세기 인쇄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잡지로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진정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환경속에서 기존의 경영방식에 안주해서는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는 것 뿐입니다.

지식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정보시대에서 우리 인쇄업계가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인쇄환경 변화와 최신 기술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한 정보수집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월간 프린팅코리아를 비롯한 인쇄관련 언론매체들은 우리 인쇄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쇄업계가 새로운 도전에 부응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월간「프린팅코리아」가 지식과 정보전달의 중심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울인쇄정보조합에서도 인쇄업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방안제시를 위해 유관단체와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인쇄정보산업이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외함께 인쇄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 쌍림동에 조합 회관을 마련하여 입주한 만큼 인쇄업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특화업종으로 선정된 인쇄산업이 정보산업의 핵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은 물론 관련단체가 합심하여야 하며 프린팅코리아가 업계의 여론을 선도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인쇄인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쇄업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잡지로 변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G

대동단결로 새 인쇄역사 창조를

전세계 축구인들의 축제인 '2002 한·일월드컵' 시즌에 맞춰 창간되는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쇄종합잡지를 지향하며 출발하는 프린팅코리아는 우리 나라 인쇄문화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잡지의 창간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새 출발의 깃발을 내딛은 대한인쇄문화협회 민재기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인쇄조합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인쇄업계는 물론 전 인쇄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쇄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장비 또한 첨단화되고 있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경영전략에 고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인쇄물량이 감소하고 비영리단체와 기관들의 인쇄업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야말로 프린팅코리아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많은 인쇄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서울시경인쇄조합의 진로는 지난5월 8일에 임시총회를 열어 현재와 같이 존속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의 명칭도 디지털 인쇄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기로 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조합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조합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인쇄업계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수주산업에서 정보제공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을 직시하여 미래 정보산업의 핵심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우리 경인쇄조합은 이제 조합을 존속시키고 명칭도 개명하였으며 조합원을 배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매진할 것입니다.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영역의 확대와 덤핑근절, 신기술 개발 등에 모든 역량을 발휘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하는 응지와 지혜가 절실하며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인쇄업계의 선도 매체인 프린팅코리아가 우리 업계의 발전과 단합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는 화합의 장은 바로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정도로 변모하는 정보화속에서 인쇄문화 산업의 미래를 제시해 주고 신기술을 제공해 주는 한편 인쇄인의 위상을 제고해 주는 공익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프린팅코리아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G



김학규
(서울경인쇄조합 이사장)